

# 융통성이 부족한 교수사회

서경호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 1

**조**동일 교수의 공개구직 광고라는 소식을 듣고 필자가 처음 느낀 것은 오죽하면 그런 말이 다 나왔겠느냐 하는 정도였다. 물론 세계문학사를 집필하는 계획이라든가, 혹은 30평 정도의 연구실에 연간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제공하고 강의부담을 주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광고의 내용 자체에 완전히 공감이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광고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조 교수의 광고 내용에는 오늘날 상당수의 대학교수들—특히 무엇인가 끊임없이 해보려는 열의를 가진 대학교수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거의 포

함되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선 조 교수의 기본적인 발상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물론 현재 대학의 여건이 본격적인 저술 작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필자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의를 하지 않고 저술에만 매달릴 시간과 공간을 달라는 생각에는 찬성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굳이 대학의 양대 기능인 강의와 연구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토론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러나 필자는 만약 조 교수가 그만한 대작을 만들어낼 의지가 있다면, 그럴수록 강의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학문은 教學相長이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듯이 한 사람의 재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학문은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생각을 나눌

때에 더욱 큰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필자는 굳게 믿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교환의 중요한 마당이 바로 강의인 것이다. 조 교수가 이런 것을 모를 사람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강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강의를 없애고 모든 시간을 저술에 투입하고 싶은 생각을 가졌을 것으로 필자는 추측한다. 이것은 인문과학자가 할 생각이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열 개의 로봇을 투입해서 열 시간 일하면 몇 개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계산하는 것과 같은 사고방식일 가능성이 큰데, 학문은 결코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일정한 업적을 거두어 내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다. 만약에 조 교수가 학생들을 향한 강의가 시간을 뺏기는 것에 불과하며, 저술 작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필자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학생들을 향한 강의가 지식의 전수라는 측면 이외에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주는 측면이 있으며, 이것이 학문 연구에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학문 연구자들은 혼자 앉아서 읽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내면 그것이 완전한 연구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연구는 생각을 글로 써내기 이전에 그것을 표현해 보고 생각을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충실해질 수 있으며 더욱 균형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인문과학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강의를 하지 않고 저술 작업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꿈이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다시 강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조 교수의 저술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구직 광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조건은 지나치게 저술 작업을 강조하는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조 교수가 세계문학사의 집필과 연관된 한 강좌만을 강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곳을 구했다면 필자는 그 생각에 찬성했을 것이다.

## 2

조 교수는 대학의 여러 여건상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필자는 이 구직광고에서 지적된 장애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조 교수의 불만이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의 네 가지 지적 중에서 도서관의 장서가 충실하지 못하다는 점은 분명히 학교당국과 나아가서는 교육당국을 향한 불만일 것이다. 그러나 그 나머지의 문제는 사실상 경직된 법률이나 제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문제들은 학교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혜를 짜 모은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교수가 말아야 할 책임 강의시간의 문제는 비록 그것이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학내에서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조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에서는 책임 시간이 일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교육법을 뜯어고쳐서 된 것이 아니라 학내에서의 조정을

거쳐서 된 것이다. 다음에 책이 있어도 들 곳이 없다는 고충도 학내에서 합의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서 장서가 많은 교수에게는 작은 강의실 크기의 연구실을 배정해 주고 장서가 적은 교수에게는 일반적인 연구실을 배정해 주면 된다. 우리나라의 어느 법률이나 학칙에도 교수들이 꼭 같은 크기의 연구실을 배정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또한 대학당국에서 반드시 똑같은 연구실을 모든 교수들에게 배정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교수들에게 똑같은 연구실이 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교수사회가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실제로 필자는 어느 교수가 장서가 많아서 다른 교수보다 약간 큰 연구실을 배정받았다가 바로 그가 속한 학과의 학과장이 반대해서 그 연구실을 반납하고 좁은 연구실을 배정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쓴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

한편, 강의할 과목이 고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과목을 개발할 여지가 없다는 조 교수의 네번째 지적 사항은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그가 속한 학과의 특수한 사정이 결코 일반적인 사정은 아니다. 실제로 서울대의 대학원에는 '연습'이라는 꼬리거 붙은 과목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담당교수가 매학기마다 적절한 부제를 붙여서 내용을 바꾸어 가며 강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조 교수가 속한 학과에서는 그런 과목을 조 교수에게 배정하지 않았던 모양이고, 그래서 조 교수는 강의를 통한 의견교환의 효율성에 상당히 회의적이었던 모양이다. 이것은 결국 그가 속한 학과 내부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문제임이 분명하며, 그것은 조 교수가 학과 내

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결코 외부를 향해 터뜨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 3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조 교수가 구직 광고라는 극단적 행동을 취하게 된 이면에는 대학의 어려운 여건이라는 배경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이나 교육당국이 강요하는 경직된 행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조 교수의 저술 작업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사실상 학내의 융통성 부족인 것이지, 제도적인 질곡이 아닌 것이다.

우리의 대학사회에는 묘한 평등주의가 있다. '모든 교수는 평등하며 따라서 평등하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교수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열정으로 학문 연구에 임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한데도 적어도 말로는 모든 교수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연구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은 모든 교수들에게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30권의 책을 써낸 사람이나 한 권의 책을 써낸 사람 모두가 똑같은 연구실을 배정받고 똑같은 시간의 강의를 맡아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안식년 제도나 연구교수 제도도 꼭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사회의 평등주의를 만든 장본인은 바로 교수들 자신이며, 따라서 그 혜택과 피해는 바로 교수들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만약에 어떤 교수가 저술 작업을 시작하면서 학교 당국에 3년간 유급휴가를 신청하고 이것이 교수회의 등을 통해서 승인될 수

있다면 어떨까? 아마 우리의 교수사회에서는 즉각적으로 “자기가 뭐라고?”, “연구는 자기 혼자만 하나?”, “뭐 그리 대단한 연구를 한다고?” 하는 등의 질시 섞인 반응이 튀어나올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그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3년간 유급휴가를 받으면서 책 한 권을 써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아마도 조 교수의 구직 광고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대학당국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행정을 펼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먼저 교수사회가 그런 탄력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탄력성을 갖추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수도 없이 많다. 우선 학과의 교수들이 찬성해야 하고 단과대학 교수들이 찬성해야 하며, 학교 당국이 그 교수의 공백을 메울 교수나 시간강사의 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하는 등의 산을 넘어야 하는 것이다. 과연 교수들이 그런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가도 의심스럽고 학교 당국에서 그 저술 작업의 중요성을 받아들여서 추가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 작업을 도와줄 태세가 되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산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이해와 제도 운영에 따른 융통성의 부족 때문에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못마땅한 것이 있으면 항상 외부로 화살을 돌리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사회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번에 조동일 교수의 구직 광고를 보고 필자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의식개혁이 제도의 개선보다 훨씬 시급하다는 점이며,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조 교수의 극단적인 행동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

---

서경호/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북대 교수를 지내고 현재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국내 중국어문학 연구 논저 목록』, 『산해경 연구』(출판 예정) 등이 있고, “梁啓超의 소설관에 대한 검토”, “중국 문학의 발생과정에 관한 관찰”, “A Study of Shan Hai Ching : Ancient Chinese Worldviews Under Transformation”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